

전시해설가 '도슨트'가 뜬다

도슨트(docent), 일명 '전시해설가'가 뜨고 있다. 제8회 광주비엔날레(9월3~11월7일) 등 국제미술 행사와 대형 전시회가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도슨트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이 속속 개설되고 있다. 최근엔 직업으로 도슨트를 준비하는 학생은 물론 주부, 청소년, 외국인노동자, 이주여성 등이 관심을 갖는 등 도슨트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광주비엔날레 등 대형 전시회 잇따라 주부·청소년·이주여성 등 수요 높아 대학들도 양성 과정 속속 개설·준비



지난해 서강정보대 평생학습지원실에서 운영한 도슨트 양성과정에서 수강생들이 광주비엔날레재단 관계자로부터 강의를 듣고 있다.

〈서강정보대 평생학습지원실 제공〉

광주에서는 지난 2002년 제4회 광주비엔날레 때 첫선을 보인 이래 난해한 현대미술을 설명해주는 전시해설가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소정의 교육과정을 거쳐 도슨트로 선발되면 광주비엔날레 등 각종 행사에 전시해설요원으로 참여하게 되며 소정의 활동비도 지급된다.

이 같은 분위기에 발맞춰 최근 일부 대학들이 평생교육프로그램으로 교육과정을 개설해 도슨트양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서강정보대학은 지난해 광주비엔날레재단과 함께 추진했던 문화 서포터즈 양성·도슨트 기본 교육과정을 심화해 올해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오는 15일부터 총 12주 과정으로 진행되는 강의는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큐레이터와 미술 전문가 초청 강의, 국내 주요 전시와 스튜디오와 연구소 방문 현장실습, 도슨트 실전 등으로 구성됐다.

이런 과정에는 지난해 도슨트 기본 과정을 수료하고 '빛고를 도슨트'라는 학습동아리를 꾸려 열정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수강생들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서강정보대학의 윤찬주씨는 "문화서포터즈 과정을 마친 수강생중 일

부는 도슨트로 활동하고 있다"며 "도슨트 기본과정을 거친 수강생들의 열의가 높아 앞으로는 좋은 성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과정에는 광주북구청 등과 연계해 외국인 근로자와 이주여성, 실직·미취업자를 대상에 포함시켜 변화대를 꾀했다.

광주비엔날레 도슨트 매니저를 거쳐 전문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윤은희씨는 "도슨트는 점점 난해해지는 현대미술 흐름 속에 관람객과 작품을 연결해주는 해설가"라며 "관람객에

게 문화적 소양을 제시하는 매력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광주보건대학교 조만간 도슨트 교육과정을 개설할 계획이다. 이 대학 오근석 교수는 "평생교육원에서 디지털영상학과 문화기획자 과정을 운영하고, 광주비엔날레 영상제에 참가한 경험이 있다"며 "2학기 과정부터 지자체와 연계해 교육과정 개설·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이하 광주문화예술

▲도슨트(docent)=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관람객들에게 전시작품 등을 소개하는 안내인이자 해설가로 '가르치다'라는 뜻의 라틴어 도세르(docere)에서 유래했다. 광주에서는 광주비엔날레, 디자인 비엔날레, 시립미술관 등에서 60여 명의 도슨트가 활동하고 있다.

교육지원센터)는 청소년 도슨트 교육에 나섰다.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현대 미술 감상 및 도슨트 교육 메트로 컨템포러리 아트'라는 제목으로 청소년(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1학년생)을 위한 현대 미술·도슨트 양성과정을 개설했다.

이번 교육은 오는 12일부터 매달 둘째·넷째 토요일에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와 광주 지역 미술관에 서 열리며 현대미술의 다양성 이해, 미술 감상 및 비평, 도슨트 실습 등 모두 14차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과정을 마치면 도슨트 교육 수료증을 발급하며 후반에는 미술관에서 도슨트로 직접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또 도슨트 활동 후에는 봉사활동 확인서도 발급한다.

한편, 광주비엔날레재단은 오는 10월까지 제8회 2010광주비엔날레에 참여할 도슨트를 공개 모집한다. 미술, 문화예술 관련 학과나 인문계열 대학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각종 미술관 도슨트 유경험자와 미술관련 강좌 수강자도 지원할 수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빛고를 선율' 도쿄 사로잡는다

광주시향, 10월 '아시아 오케스트라 워크 2010' 초청 연주

3~5일 日 관계자 내광

광주시립교향악단(상임지휘자 구자범)이 오는 10월 일본 초청 연주에 나선다.

광주시향은 일본 문부성이 행사비를 전액 지원, (사)일본오케스트라연맹과 공동 주최하는 '아시아 오케스트라 워크 2010'에 참가한다.

오는 10월 2일~6일까지 일본을 방문하는 광주시향은 3일 리허설을 가진 후 4일 2천석 규모로 도쿄에서 가장 훌륭한 연주장의 하나인 국립교향악당에서 공연을 갖는다. 이어 5일에는 오사카로 이동, 오사카시포니움에서 공연을 가질 예정이다.

구 지휘자는 일단 연주곡목으

로 지난해 4월 취임연주회 때 선보였던 구스타프 말러의 교향곡 1번 '거인'을 선택했다. 자세한 연주 곡목은 주최측과 상의, 최종확정할 예정이다.

광주시향은 주최측으로부터 항공료와 숙박비, 체류비 등 1억 5000만원에 이르는 경비를 모두 지원받고 연주회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 1976년 창단한 광주시향은 인원이 많다 보니 경비 문제로 해외연주회에 나설 기회가 거의 없었다. 해외 연주는 지난 2007년 일본 소도시인 가나자와 연주회가 유일했다.

지금까지 아시아오케스트라워크에는 한국의 KBS교향악단이 참가해왔으며 지난해에는 인천시립교향악단이 무대에 올랐다.

한편 일본 공연을 앞두고 3~5일까지 일본 관계자들이 광주를 방문한다. 행사를 주최하는 일본 문부성의 노부히로 오구우라씨와 타미오 카노 일본오케스트라연맹 감독이 광주를 찾는다. 이들은 광주시향 관계자들과 세부 일정, 레퍼토리 등에 대해 논의하며 4일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리는 '고전음악의 밤' 공연을 관람할 예정이다.

광주시향은 "한국 음악계로 부터 구지휘자를 소개받은 일본 주최측이 초청 메일을 보내 연주회를 추진하게 됐다"며 "일본 공연이 단원들에게도 자극이 되고 광주시향을 알리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민기기자 mekim@kwangju.co.kr

시립미술관 릴레이 토크

구로다 후쿠오카 미술관 학예과장 초청 팔각정·양산동 스튜디오 작가들과 토론

"젊은 작가들임에도 테크닉면에서는 놀라운 수준입니다. 소재의 폭을 넓히고 경험을 기반으로한 주제 선정에 신경쓴다면 보다 좋은 작품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1일 광주시립미술관(관장 박지택) 창작스튜디오 작가 릴레이토크에 나선 구로다 라이치 일본 후쿠오카 아시아 미술관 학예과장은 과격적인 주제 선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시립미술관의 릴레이토크는 시립미술관이 외국미술평론가와 교류의 장을 열고 작가들의 작품과 형식에 대해 고민해 볼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지난해부터 실시해 온 행사다.

이번 행사에는 후쿠오카 트리엔날레를 기획했던 구로다 라이치 학예과장을 초청, 팔각정·양산동 스튜디오 입주작가들과 스튜디오에서 만나 1:1 자유토론하는 방식



1일 광주시립미술관 팔각정창작스튜디오를 찾은 구로다 라이치(오른쪽)씨가 입주작가 오음식씨와 작품을 보며 이야기하고 있다. 〈광주시립미술관 제공〉

으로 진행됐다.

광주시립미술관 관계자는 "이번 릴레이토크는 당초 오후 6시까지 계획되었으나 밤9시까지 이어졌으며 평론가와 작가 모두 작품에 대해 고민하고 성찰해 보는 진지한 자리였다"고 평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아비드 크로스오버 앙상블 '추억의 OST 향연'

6일 금호아트홀

아비드 크로스오버 앙상블(단장 성해영) 정기연주회가 오는 6일 오후 7시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시인과 함께하는 영상과 음악·추억의 명OST 향연'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연주회에서는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영화와 드

라마 음악을 선사한다.

연주 레퍼토리는 영화 '번지 점프를 하다'에 등장했던 쇼스타코비치의 '재즈 조곡 2번', 드라마 '추노'의 삽입곡, '오즈의 마법사', '귀여운 여인', '태극기 휘날리며' 삽입곡 등이다.

단원은 강재진·홍산미·정정숙·문맹권·박소현·하진·장관수·성하늘씨 등이며 소프라노 노연선씨가



오페라 '잔니 스키키' 중 '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를 협연한다. 또 클라리넷의 나승엽(나주금성고 1년),

장양유(문성중 3년)군이 찬조출연한다. 문의 010-3601-7694.

/김민기기자 mekim@kwangju.co.kr

MEGABOX

1관	방자전 (18세)	최고급관
2관	페르시아의 왕자 (12세)	
3관	꿈은 이루어진다(15세) / 하니 (18세)	
4관	엣지 오브 다크니스(18세)	
5관	드래곤길들이기3D(자막)(더빙)(2세)	
6관	로빈 후드(15세)/페르시아의 왕자(12세)	
7관	내 남자의 손이(15세)/내 캠페같은 애인(15세)	
8관	유령작가 (15세)	
9관	방자전 (18세)	

• 호남주치던위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 2시간 30분 초상시 점선요금 부과

전설의 대재물이 선택한 단 하나의 영웅

www.megabox.co.kr

1544-0600

컬럼버스시네마

1관	하니 (18세)	
2관	내 남자의 손이(15세)/내 캠페같은 애인(15세)	
3관	방자전 (18세)	
4관	방자전 (18세)	
5관	드래곤길들이기3D(자막)/로빈 후드(15세)	
6관	드래곤길들이기3D(2세)	
7관	꿈은 이루어진다(15세)	
8관	페르시아의 왕자 (12세)	
9관	엣지 오브 다크니스(18세)	
10관	유령작가 (15세)	
11관	페르시아의 왕자 (12세)	

3D디지털 상영!

4/1(목) 상무점, 아남점 동시개봉!!

www.columbuscinema.com

1588-7941

CINUS

색깔있는 영화산책 씨너스

1관	엣지 오브 다크니스(18세)	
2관	유령작가 (15세)	
3관	페르시아의 왕자 (12세)	
4관	내 캠페같은 애인(15세)	
5관	꿈은 이루어진다 (15세)	
6관	하니 (18세) / 방자전 (18세)	
7관	방자전 (18세)	
8관	드래곤길들이기3D(자막)(더빙)(2세)	

씨너스 전대 3D(4K) 상영!!

• 무료주차 3시간 • 아동청소년 할인혜택

www.cinus.co.kr / 1544-0070

511-1000

Primus

영화보는 즐거움이 있는 곳 제일극장

1관	방자전 (18세)	
2관	나이팅게일 (18세)	
3관	내 캠페같은 애인(15세)	
4관	하니 (18세)	
5관	유령작가(15세)	
6관	아이언맨2 (12세)	
7관	로빈 후드 (15세)	

• 무료주차 3시간 • ARS 전화예매 문의 227-1960 (광주 세무소 앞 효내터유류시장 -다. 입점권 구매 고객에 한함)

www.primuscinema.com / www.jellicinema.co.kr

227-1960